

〈모드와 무드〉에 나타난 반달의 음악어법*

최 은 경** · 유 승 지***

■ 국문초록

반달은 피아노 교사로 활동하며 많은 교육용 피아노 작품을 남긴 미국의 작곡가이다. 그 중 1989년에 작곡된 〈모드와 무드〉는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선법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이 작품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반달의 음악어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7개 선법의 구별된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중지음과 특징음이 강조된 선율과 화성 진행을 사용하였다. 둘째, 재즈적 요소가 발견되는데, 페달 포인트 및 텐션 음의 빈번한 사용, 엷박, 당김음, 불규칙 박을 사용한 리듬의 변화, 그리고 워킹 베이스를 이용한 선율 진행 등이다. 셋째, 중급 학생들의 수준을 배려한 교수학적 아이디어가 적용되었는데, 각 선법의 구별된 정서를 표현한 표제의 사용, 손가락의 교차와 이동을 최소화한 선율 진행, 단순한 선율 동기를 음역, 썸머, 템포, 및 반주 패턴의 대비를 통해 변형시킨 것, 그리고 섬세한 페달 표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반달의 교육용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선법에 기초한 피아노 음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로버트 반달, 모드와 무드, 선법, 교육용 피아노 작품

〈목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반달의 피아노 작품 개요 | 참고문헌 |
| III. 〈모드와 무드〉에서 나타난 반달의 음악어법 | |

* 본 논문은 2021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제13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학술대회 포스터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임.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박사과정, cek2255@naver.com

*** 한세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sj_ryu@hanmail.net

I. 서론

1894년경 당디(V. d'Indy)등에 의해 창설된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 de Paris)은 역사 속에 파묻혔던 교회선법(church mode)을 부활시켰다(Burge, 1997). 장음계가 된 이오니아 선법과 단음계가 된 에올리아 선법이 작곡의 주요 소재였던 서양 음악가들에게 각각의 음계마다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선법은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다가왔다. 드뷔시(C. Debussy)는 빈번히 선법 음계에 기초하여 선율을 구성하였고(Gillespie, 2005), 바르톡(B. Bartók)의 <미크로코스모스>(Mikrokosmos, 1926-1937)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음계는 교회선법이었다(조치노, 1999). 그리고 재즈(jazz)에서 데이비스(M. Davis)는 선법을 장·단조체계에 기초한 화성의 범주를 벗어난 즉흥연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Randel, 1986). 조성음악이 서양 음악을 지배하던 시기, 장·단조체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던 선법은 20세기 이후 클래식 작곡가들의 음악에서 선율 및 화성의 주요 소재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 및 상업 음악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아노 학습 과정에서 선법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승지는 2010년에 발표한 “초급 피아노 교재에 사용된 장·단조의 체계 이외의 악곡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교재에 선법에 기초한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수록된 교재는 발견할 수 없었다.”(유승지, 2010, p. 85)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11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아노 교재들을 살펴보면 일부 교재에 선법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들어간 것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법에 기초한 곡을 연주하면서도 왜 그 곡이 장·단조와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연주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 알프레드 출판사의 전속 작곡가(Alfred Music Author)로 활동하며 많은 교육용 피아노 작품을 남긴 반달(R. D. Vandall, 1944-2017)은 조성음악 뿐 아니라 선법에 기초한 작품도 다수 작곡하였다. 반달의 선법 관련 작품은 단편적 작품, 혹은 모음곡 형태로 구분되는데 그 중 작품의 제목에서 ‘선법’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모음곡은 총 2개가 있다. 두 모음곡 모두 이오니아 선법에서부터 로크리아 선법을 포함한 7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1989년에 출판된 <모드와 무드>(Modes and Moods)는 중급 초반 학생을 위한 작품이고, 2000년에 출판된 <모드적 분위기>(Modal Expression)는 초급에서 초급 후반 학생을 위한 작품이다. 반달이 작곡한 작품들은 대부분 특별한 학습 목표를 담고 있는데,

이 두 모음곡에는 학생들이 선법 음계를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드와 무드〉는 중급 학생들을 위하여 작곡되어 〈모드적 분위기〉보다 선율, 리듬, 그리고 화성적 어휘가 한층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음악적 완성도도 더 높다.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용 피아노 작품은 시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작곡된 교육용 작품들은 국내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5년 사이 피아노 교수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교육용 작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의 논문집인 〈음악교수법연구〉 창간호부터 2021년 2월에 발행된 22권 1호까지 수록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20세기 이후 작곡된 교육용 작품 관련 연구는 총 11편으로 나타난다(김혜라, 2020; 나란이, 2018; 낙완주·유승지, 2019; 박옥희, 2014; 박진희·유승지, 2019; 신은혜·이주혜, 2021; 유은석, 2017; 이연경, 2016a; 이연경, 2016b; 채수아, 2017; 최은정, 2009).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생소한 작곡가들의 교육용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매해 지속적으로 실린 것이 발견되는데, 이는 국내 피아노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창작된 교육용 작품을 발굴하여 탐색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전 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이 차별성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선법을 반달의 〈모드와 무드〉의 분석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선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국의 주요 교육용 작품 작곡가 중 한 명인 반달의 특징적 음악어법을 발견한다.

둘째, 반달이 작품 창작 과정에서 사용한 교수학적 장치를 발견함으로써 피아노 교육용 작품 창작에 관심이 있는 교사 혹은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II. 반달의 피아노 작품 개요

피아노 연주 전공으로 볼드윈 윌러스 대학교(Baldwin-Wallace College)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대학교(The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반달은 오하이오 주 뉴 필라델피아(New Philadelphia)에서 부인과 함께 피아노 스튜디오를 38년 동안 운영했다(Alfred Music, 2021). 반달은 “내가 음악을 작곡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Johnson, 2007, p. 11)라고 말하였는데, 이 글을 통해 그의 창작 활동

의 주목적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미음악교사협회(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MTNA)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초청되어 발표를 하며 명성을 쌓았던 반달은 1990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Gladden, 2017). 그가 받았던 상인 ‘음악대학 졸업생 공로상(School of Music Alumni Achievement Award)’의 첫 번째 수상자는 크럼(G. Crumb)이었고, 반달은 두 번째 수상자였다(Albergo & Alexander, 2011). 이상과 같은 반달의 경력을 비추어 볼 때 반달이 미국 내에서 피아노 교사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알프레드 출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달의 피아노 작품은 305개이며(Alfred Music, 2021), 그 중 두오, 편곡, 그리고 단편적 작품을 제외한 모음곡 형태로 이루어진 작품집은 총 20개로 추려진다. 그의 작품들은 초급에서부터 고급 초반까지 6개의 레벨(elementary, late elementary, early intermediate, intermediate, late intermediate, early advanced)로 분류되어 있는데, <표 1>은 그의 작품을 난이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내용을 보여 준다.

<표 1> 반달의 작품 목록

제목	난이도	제목	난이도
Bagatelles Vol. 1, 2	E. I - I	Piano Extravaganza Solos Vol. 1, 2, 3	E. I - L. I
Celebrated Lyrical Solos Vol. 1, 2, 3, 4, 5	E. I - L. I	Preludes Vol. 1, 2, 3	E. I - E. A
Celebrated Piano Solos Vol. 1. 2. 3. 4. 5	L. E - L. I	Robert D. Vandall's Favorite Solos Vol. 1, 2, 3	L. E - L. I
Celebrated Virtuoso Solos Vol. 1, 2, 3, 4, 5	L. E - L. I	Romantic Inspirations	E. I
Celebrated Jazzy Solos Vol. 1, 2, 3, 4, 5	L. E - L. I	Sampler Vol. 1, 2	E. I - L. I
Contrasts	I - L. I	Short Suite	E. I
Etude Suite	I	Take Note Vol. 1, 2, 3	E - I
Images	L. E	Three Ovations	I
Modal Expressions	E - L. E	Vandall Sonatinas	I
Modes and Moods	E. I	Vandall Stylings U.S.A.	I

* 작품은 알파벳순으로 제시하였고 난이도는 약자(early: E, late: L, elementary: E, intermediate: I, advanced: A)로 표기하였다.

다년간 피아노 교사로 활동했던 반달의 작품에는 학생들이 흥미롭게 피아노를 학습하고 피아노 테크닉 및 음악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학생들이 초급 레벨부터 다양한 음계를 경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초급 후반 학생을 위해 작곡된 〈이미지〉(Images)의 경우 장·단조 외에 믹소리디아 선법, 도리아 선법, 그리고 온음음계에 기초한 음악이 수록된 것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중급초반에서 고급 초반 학생들의 연주를 위해 작곡된 〈프렐류드〉(Preludes)는 바흐(J. S. Bach)의 〈평균율〉(Das Wohltemperierte Klavier)처럼 24개의 조성이 다 소개되고 있다. 또한 전체가 5권으로 구성된 〈셀러브레이티드 재즈 솔로 모음곡〉(Celebrated Jazzy Solos)의 경우 재즈 스케일에 기초한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작품집에는 부기우기, 블루스, 랙타임, 스윙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달 소나티나〉(Vandall Sonatinas)의 경우 전통적인 고전 형식을 좇은 3악장 구조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전통적 스타일에서부터 재즈 스타일까지 아우르면서 다양한 음계에 기초한 음악을 작곡했던 반달은 〈모드와 무드〉에서 그가 관심이 있었던 두 가지 주제: ‘선법’과 ‘재즈’를 중급 수준에 적절하게 배합하여 교육용 피아노 작품 작곡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냈다.

III. 〈모드와 무드〉에서 나타난 반달의 음악어법

1. 〈모드와 무드〉 작품 구성 개요

〈모드와 무드〉는 이오니아 선법부터 로크리아 선법까지 7개의 선법이 적용된 작품이다. 35마디에서 47마디에 이르는 짧은 소품으로 작곡된 각 곡은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순한 형식에 기초하고 있고 각 선법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표제를 제시하였다. 템포는 이탈리아어로 된 빠르기 말 대신 영어 표기를 사용하였고, 박자는 7번만 겹박자인 6/8박자가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홑박자(4/4, 2/2)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선율이 여러 음역에서 반복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D1에서부터 C7에 이르는 음역¹⁾에서

1) 피아노의 음역



선율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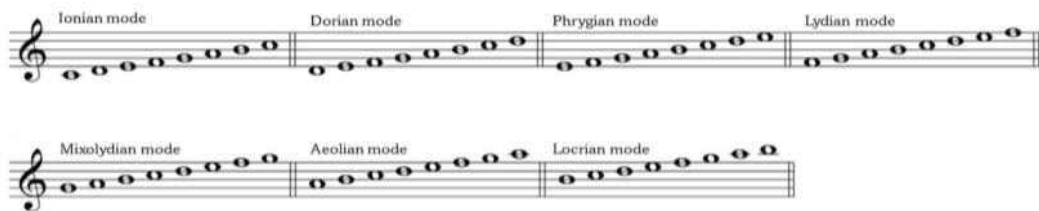
〈표 2〉 반달의 〈모드와 무드〉 작품 구성

제목	조성 (사용된 선법)	마디	템포	박자	형식	음역
1. 전원곡 (Pastorale)	이오니아 선법 (Ionian)	42	Moderate tempo	4/4	AA'Coda	C2-C6
2. 재즈 같은 (Jazzy)	도리아 선법 (Dorian)	47	Moderately fast	4/4	도입부AA'BA'' Codetta	D1-A6
3. 주정뱅이의 춤 (Reveler's Dance)	프리기아 선법 (Phrygian)	38	Sprightly	2/2	AA'BA''Codetta	C4-C7
4. 리디아 녹턴 (Lydian Nocturne)	리디아 선법 (Lydian)	35	Moderately slow; freely, expressively	4/4	도입부AA'BA'' Codetta	F2-A6
5. 활기찬! (Energized!)	믹소리디아 선법 (Mixolydian)	36	Animated	4/4	AA'Codetta	G1-B6
6. 후회 (Regrets)	에올리아 선법 (Aeolian)	37	Moderate tempo	4/4	도입부AA'BA'' Codetta	C3-E6
7. 난기류 (Turbulence)	로크리아 선법 (Locrian)	42	Fast; with drama and mystery	6/8	ABCoda	B1-B5

2. 선법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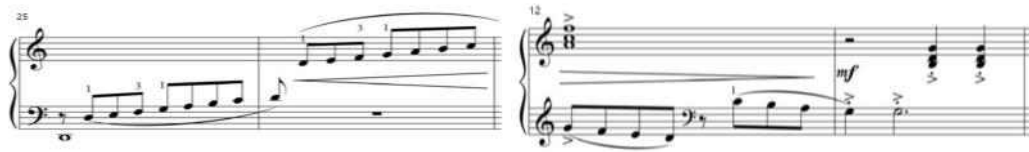
1) 선법 음계를 강조한 선율 진행

반달은 〈모드와 무드〉 각 곡의 표제 밑에 그 작품의 기본이 되는 음계를 〈악보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악보 1〉 반달이 제시한 선법 음계

〈악보 1〉에서 나타나듯 반달은 이 작품에서 임시표 없이 하얀 건반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선법 음계를 기초로 작곡을 하였는데, 작품에서 그 음계의 구성음들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선율 진행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악보 2〉와 〈악보 3〉은 그 예를 잘 보여주는데, 2번에서는 오른손에서 도리아 음계가 제시되고 5번에서는 왼손에서 믹소리디아 음계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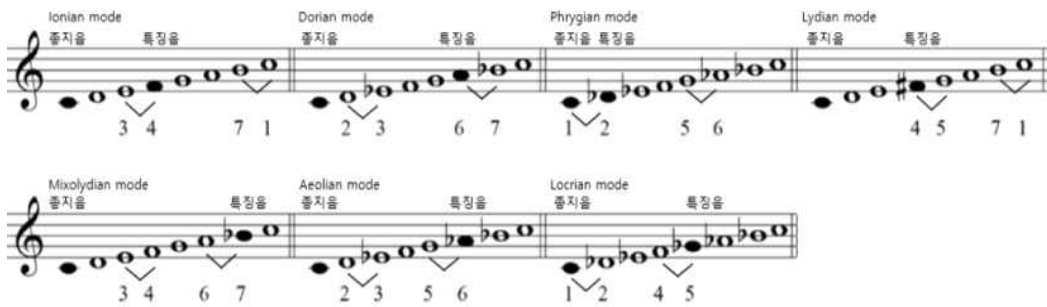


〈악보 2〉 2번 '재즈 같은', 마디 25-26

〈악보 3〉 5번 '활기찬', 마디 12-13

2) 각 선법의 특징음을 강조한 선율

반달이 제시한 선법 음계를 도를 종지음으로 지정하고 표기하면 〈악보 4〉와 같은 형태로 음계가 만들어지는데, 〈악보 4〉는 〈악보 1〉보다 각 선법의 상이한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각 선법은 온음과 반음의 위치가 다르고 특징음(characteristic note)도 구별되게 존재하는데, 특징음은 선법이 평범한 장음계 혹은 자연단음계가 되어버릴 우려를 막는 역할을 한다(Persichetti,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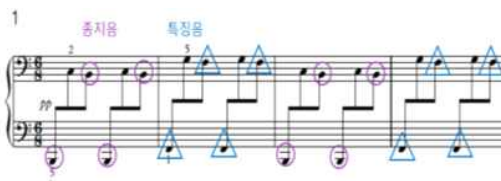
〈악보 4〉 도를 종지음으로 지정한 7개의 선법

반달도 그의 작품에서 종지음과 특징음을 강조하여 각 선법 특유의 색채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것이 발견된다. 리디아 선법에 기초한 4번의 경우 종지음인 F음이 지속해서 왼손에

서 강조되고 각 마디의 강박에서 종지음인 F음과 특징음인 B음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리디아 선법의 정체성을 드러낸다(악보 5). 로크리아 선법에 기초한 7번은 종지음인 B음과 특징음 F음이 왼손에서 곡의 시작부터 17마디 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를 통해 감5도의 음정이 강조되어 로크리아 선법 특유의 불안정한 분위기가 증폭되어 나타난다(악보 6).



〈악보 5〉 4번 ‘리디아 녹턴’, 마디 3-6



〈악보 6〉 7번 ‘난기류’, 마디 1-4

조성음악에서 으뜸음과 딸림음, 그리고 이끈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7개의 선법 음계에 기초해서 작곡된 반달의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각 선법의 특징음과 종지음이 강조되면서 선율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각 곡은 조성음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분위기가 조성된다.

3) 선법 음계에 기초한 화성

페르시케티(V. Persichetti)는 I도, IV도, V도 화음을 주요 3화음으로 지칭하고 그 밖의 화음을 부 3화음으로 보는 장·단음계의 화음 분류 방식과는 다르게 각 선법의 주요 3화음과 부 3화음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이 요약된다(1980).

〈표 3〉 페르시케티가 제시한 선법에서의 주요 3화음과 부 3화음 분류(Persichetti, 1980)

음계	도리아	프리기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에올리아
주요 3화음	I, II, IV	I, II, VII	I, II, VII	I, V, VII	I, IV, VI
부 3화음	III, V, VII	III, IV, VI	III, V, VI	II, IV, VI	III, V, VII

반달의 작품에서도 페르시케티가 주요 3화음으로 구분한 화성진행이 자주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 이오니아 선법에 기초한 1번은 이오니아 선법의 특징음인 F음이 포함된 IV도 화성이 강조되는데, IV-I의 진행이 곡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V-I의 화성진행

이 강조되는 다장조 음악과 구별되는 색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악보 7). 또한, 자리바꿈을 통해 종지음인 C음이 페달 포인트(pedal point)로 사용되며 강조된다. 믹소리디아 선법이 사용된 5번의 경우에도 특징음 F가 포함된 VII도, V도 화음이 강조되고, 해당 선법의 종지음인 G음과 특징음인 F음이 반복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악보 8).



〈악보 7〉 1번 '전원', 마디 1-4



〈악보 8〉 5번 '활기찬!', 마디 17-20

종지부분에서도 V-I의 진행대신 각 선법의 특징음이 포함된 화성을 강조한 진행이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 1번의 코다 부분의 경우 10마디 동안 이오니아 선법의 특징음인 F음이 포함된 IV도와 I의 진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악보 9), 3번의 코데타 부분 역시 프리기아 선법의 특징음인 D음이 포함된 VII-I의 화성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악보 10).



〈악보 9〉 1번 '전원', 마디 37-42



〈악보 10〉 3번 ‘주정뱅이의 춤’, 마디 33-38

4) 각 선법의 구별된 정서를 묘사한 표제의 사용

구성음이 같아도 온음과 반음의 위치가 달라지고, 특징음이 구별되게 적용되는 선법 음계는 각각 상이한 정서(affect)가 느껴진다. 이에 대해 아틀라스(A. Atla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선법이 어떤 감정적인 특성(expressive quality)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차를리노(G. Zarlino)는 도리아 선법이 슬프고 쾌활한 것의 중간 정도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 표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 않다. 4명의 학자들은 도리아 선법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중하며(Gaffurius, 1518); 행복하고 즐겁고(Aron, 1525); 중대하고 신중하며 위엄 있고 겸손하며(Glarean, 1547); 그리고 나른하고 걱정과 근심을 덜어 내주는(Finck, 1556)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프리기아 선법에 대해서는 분노를 유발하고 전쟁에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Atlas, 1998, p. 560).

언급된 5명의 학자는 도리아 선법에 대해 각각 다른 생각을 드러낸다. 하지만 위의 글을 통해 도리아 선법과 프리기아 선법이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장기호(2017)는 각각의 모드는 듣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각 선법에서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심리적 느낌이 있다고 하며 각 선법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선법의 분위기(장기호, 2017, p. 18)

선법 구분	이오니아	도리아	프리기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에올리아	로크리아
특징적 분위기	가장 안정적이며 편안한 느낌	생각에 잠긴 듯한 느낌	이국적이고 어두운 느낌	도시적이고 밝은 느낌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어둠지만 로맨틱한 느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느낌

반달 역시 각 선법 음계마다 구별되는 감정을 느끼고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각 선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표제를 제시한 것이 발견된다. 장조에 가까운 선법인 이오니아(1번), 믹소리디아(5번)는 '전원', '활기찬!'과 같이 밝은 분위기가 연상되는 표제가 붙어 있다. 그리고 단조에 가까운 선법인 프리기아(3번), 에올리아(6번), 로크리아(7번)는 '주정뱅이의 춤', '후회', '난 기류'로 표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프리기아 선법에서 로크리아 선법으로 변해 갈수록 점점 더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가 강조된다.

3. 재즈적 요소의 반영

코드의 진행이나 관용 공식(idiomatic formulas)에 의존하기보다 선법을 사용하여 즉흥 연주나 작곡을 하는 재즈를 모달 재즈(modal jazz)라고 한다(Bouffard, 2004). 모달 재즈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에 재즈 테크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Robinson, 1980), 현재까지도 모달 재즈는 재즈 음악가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테크닉 중 하나이다. 반달은 대학 재학 시절 16세기와 18세기 대위법 수업을 무척 좋아했고, 일리노이 대학교의 엘리스톤(R. Elliston)이 강의하는 재즈 수업을 들으면서 재즈 피아니스트들이 어떻게 화성 진행을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Johnson, 2007). 그가 재즈적 화성 어휘를 품은 선법 작품들을 다수 창작한 것은 이러한 학습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 작품인 <선법을 사용한 블루스>(Blues á la Mode)는 그가 좋아했던 선법과 재즈의 결합을 제목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작품이고, 그의 대표적 재즈 모음곡 <셀러브레이티드 재즈 솔로 모음곡> 외의 다른 모음곡에도 재즈 스타일에 기초한 작품들이 포함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드와 무드>에서도 어김없이 반달의 재즈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데 제목이 '재즈 같은'이라고 표기된 2번외의 작품에도 재즈적 요소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1) 재즈적 화성 어휘의 적용

스윙 뮤지션들은 장3화음에 6도 음을 추가했고, 9도 음이나 11도 음까지 이용해서 7도 음을 강화했다(Berendt, 2006). 전통 화성학에서 비화성음으로 취급되던 9도, 11도, 13도 음정은 재즈에서 텐션(tension)이라 지칭되며 조성음악에서 느낄 수 없는 풍부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음들이 되었다. 반달의 <모드와 무드>에서도 이러한 재즈적 화성 어휘들이 빈번하게 적용된 것이 발견된다.

〈악보 11〉은 반달 특유의 화성 기법을 집약해서 보여주는데 3화음에 2도, 6도 음정을 결합한 화음을 비롯하여 7화음에 9도, 11도 음정을 결합한 화음의 예를 포함하고 있다. 〈악보 12〉는 마디 9부터 마디 12 사이의 화성진행을 모음화음으로 제시한 것인데 텐션 음들이 포함된 화음과 장·단 3화음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화성진행은 긴장과 이완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이를 통해 색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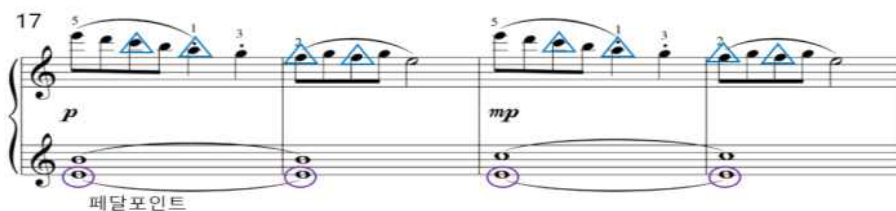


〈악보 11〉 2도, 6도, 9도, 11도 음정이 결합된 화음의 적용, 1번 '전원', 마디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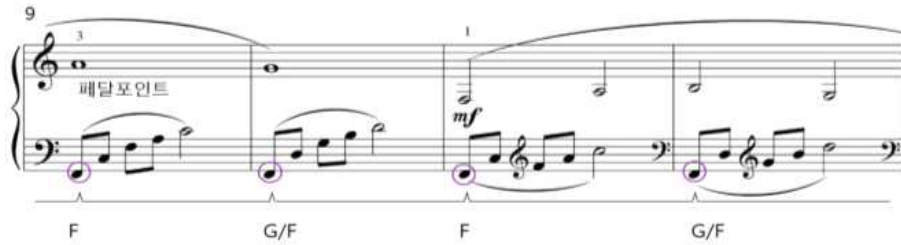


〈악보 12〉 1번 '전원', 마디 9-12의 화성진행 모습

또한 반달은 근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페달 포인트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악보 13〉에서는 프리기아 선법의 종지음인 E음이 4마디에 걸쳐 제시되는 동안 오른손에서 프리기아 음계의 선율이 진행되는 예를 보여주는데, 이때 음계에 내재한 비화성음들이 E음과 섞이면서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악보 14〉에서는 화음이 마디 단위로 바뀌는 가운데 리디아 선법의 종지음인 F음이 페달 포인트로 사용되어 풍성한 음색이 만들어지는 예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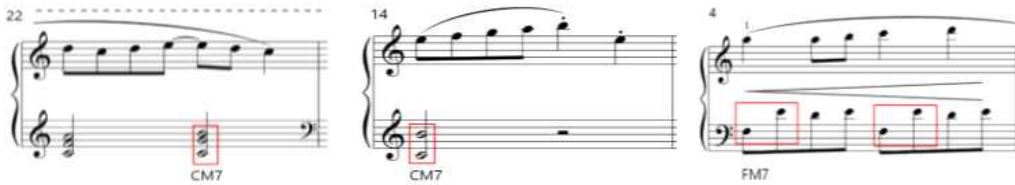


〈악보 13〉 3번 '주정뱅이의 춤', 마디 17-20



〈악보 14〉 4번 ‘리디아 녹턴’, 마디 9-11

그 외 7화음 중에서도 장7화음의 사용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악보 15, 16, 17).



〈악보 15〉
1번 ‘전원’, 마디 22

〈악보 16〉
3번 ‘주정뱅이의 춤’, 마디 14


〈악보 17〉
6번 ‘후회’, 마디 4

2) 재즈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듬과 선율의 적용

반달은 리듬과 선율에서도 재즈적 요소들을 적용하였는데, 재즈에서 즐겨 쓰는 리듬적 요소들 중 엇박, 당김음, 다양한 박의 그루핑 등이 발견되고 워킹 베이스(walking base)를 사용한 선율도 나타난다. 제목에서부터 재즈적 분위기가 강조된 2번 ‘재즈 같은’에서는 〈악보 18〉과 같이 엇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악센트까지 추가되어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악보 18〉 2번 ‘재즈 같은’, 마디 13-17

반달은 당김음도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1번에서는 한 곡에서 4가지 형태의 당김음 ()이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악보 19, 20, 21, 22).



〈악보 19〉 1번 '전원', 마디 1-3



〈악보 20〉 1번 '전원', 마디 11-12



〈악보 21〉 1번 '전원', 마디 27-28



〈악보 22〉 1번 '전원', 마디 39-40

엇박, 당김음 외에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불규칙 박(unequal beat)의 사용도 발견된다. 2번의 마디 9는 2+3+3으로 이루어진 박의 그루핑을 보여준다(악보 23). 반달은 오른손과 왼손의 박의 그루핑을 다르게 해서 재즈적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악보 24〉의 경우 오른손은 2+4+2, 왼손은 2+3+3의 그루핑으로 구성된 것이 발견된다.



〈악보 23〉 2번 '재즈 같은', 마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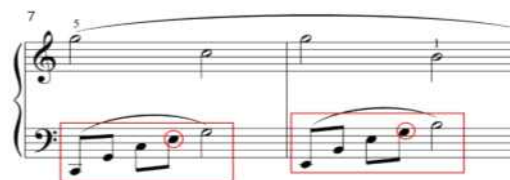
〈악보 24〉 2번 '재즈 같은', 마디 33

리듬 외에 왼손의 반주 선율에서도 재즈적 요소가 발견되는데, 2번에서는 하행하는 위킹 베이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악보 25). 그 외에도 〈악보 26〉과 같이 3화음을

아르페지오 선율로 연주할 때 근음에서부터 순차적으로 3음, 5음의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3음의 등장을 지연시키는 반주 패턴, <악보 27>과 <악보 28>과 같이 4도 혹은 2도 음정을 포함한 반주 패턴을 사용하여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악보 25> 2번 '재즈 같은' 워킹베이스, 마디 27-29



<악보 26> 4번 '리디아 녹턴', 마디 7-9



<악보 27> 2번 '재즈 같은', 마디 14-17



<악보 28> 6번 '후회', 마디 9-10

4. 중급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교수학적 아이디어의 적용

반달은 일리노이 대학교 시절 라이크(J. Lyke)를 만나면서 피아노 교수법에 눈을 뜨게 되었고, 반달이 작품 창작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에 라이크는 멘토(mentor)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Johnson, 2007). 전미피아노교수법학회(The National Conference on Keyboard Pedagogy: NCKP)를 크로니스터(R. Chronister)와 함께 공동으로 만들고(Choi, 2012), 피아노교사로서, 학자로서, 작곡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한 라이크를 만나면서 반달은 교육용 작품 작곡가로서의 안목을 높이고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겠다.

알베르고와 알렉산더는 <피아노 레퍼토리 가이드: 중급 및 고급 문헌>(Piano Repertoire Guide: Intermediate and Advanced Literature)에서 1900년대 이후의 작품을 '1990년대 이후의 현대문헌(contemporary literature from 1900)'과 '재즈 교재를 포함한 교육용 작품 작곡가의 현대문헌(contemporary literature: pedagogical composers<including jazz selections>)'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반달을 교육용 작품 작곡가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길록(W. Gillock)처럼 작곡가가 교육용 작품을 위주로 작곡하였는지 혹은 코플랜드(A. Copland)와 바르톡처럼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은 교육용 작품도 작곡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연주회용 작품(오케스트라, 현악4중주 등)을 많이 창작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Albergo & Alexander, 2011, p. 117).

한편, 알베르고와 알렉산더는 위의 책에서 피아노 작품들을 초급(E)/ 초급중반(E-I)/ 중급(I)/ 중급중반(I-A)/ 고급(A)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반달의 <모드와 무드>를 ‘초급 중반(E-I)’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된 작품 들 중 반달의 <모드와 무드>와 유사한 수준의 시대별 레퍼토리는 <표 5>와 같다. 따라서 <표 5>에서 제시된 작품을 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레퍼토리로 반달의 <모드와 무드>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반달의 <모드와 무드>와 유사한 수준의 시대별 레퍼토리

구분	작품
바로크	Bach, Anna Magdalena Bach Notebook, BWV Anh.113-132
고전	Beethoven, Variations on a Swiss Song WoO 64
낭만	Burgmüller, 25 Progressive Studies, Op. 100
현대	Kabalevsky, 24 Pieces for Children, Op. 39

피아노 학습 과정에서 <모드와 무드> 같은 교육용 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셀러브레이션 시리즈 퍼스펙티브즈>(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교재에는 피아노 교육용 작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다음의 글을 읽어 보면 교육용 작품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명료하게 나타난다.

일부 교사는 피아노 레퍼토리 레벨 1과 피아노 레퍼토리 레벨 2에 쉬운 소나티네 혹은 슈만의 작품이 수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한다. 클레멘티의 소나티네와 낭만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레벨을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이다. 초급 학생들은 쉬운 낭만 시대 작품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성부 구성, 소나티나 연주를 위해 요구되는 스케일 패시지와 반주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레벨 1과 2에서는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표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음악적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다가올 더 도전적인 레퍼토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Albergo et al., 2008, p. 21).

반달은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을 학생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그 작품을 연주할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설명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다시 작곡하거나 그 부분을 삭제했다(Johnson, 2007). <모드와 무드>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반달의 다양한 교수학적 아이디어들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손가락의 교차와 이동을 최소화한 선율 진행

반달은 학생들을 위한 작품을 창작할 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고, 학생들이 편안한 손의 움직임으로 연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될 수 있으면 어색한 손가락 번호나 손가락의 이동을 피하려고 하였다(Johnson, 2007).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모드와 무드>에서도 잘 드러난다. <악보 29>는 다섯 손가락 자리(five finger position)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선율의 예를 잘 보여준다.



<악보 29> 6번 '후회', 마디 10-13

또한 6번에서는 베이스라인이 하행 진행하고, 비화성음인 4도 음정을 강조하는 알베르티 베이스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손가락 움직임 안에서 다양한 화성적 색채감을 경험하게 된다<악보 30>.



<악보 30> 6번 '후회', 마디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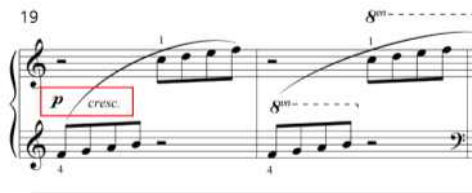
그리고 <악보 31>과 같이 반복되는 패턴을 효율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지법을 제시한 것도 발견된다.



〈악보 31〉 5번 ‘활기찬’, 마디 33-36

2) 반복적 선율의 다양한 변형을 통한 난이도 조절

반달은 “첫 번째 프레이즈는 작품의 나머지 부분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Johnson, 2007, p. 9)고 하였는데, 〈모드와 무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제시된 선율 동기가 작품의 근간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 패시지들에서 반달은 〈악보 32, 33〉처럼 대조적인 악상을 사용하여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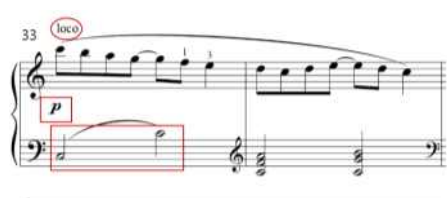


〈악보 32〉 4번 ‘리디아 녹턴’, 마디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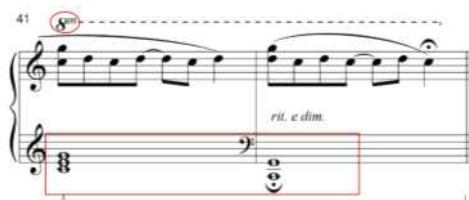


〈악보 33〉 4번 ‘리디아 녹턴’, 마디 23-24

1번의 경우에도 처음 4마디에서 제시된 선율이 전체 곡에서 6번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느낌은 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악보 34, 35〉에서 제시된 것처럼 썸머림, 음역, 반주패턴, 및 템포 등을 바꿈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선율의 제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패턴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 암보를 용이하게 만들며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도 단축시킨다. 또한 음역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소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선율이 여러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자신이 익힌 패턴을 이용한 즉흥연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악보 34〉 1번 '전원', 마디 33-34, 마디 37-38



〈악보 35〉 1번 '전원', 마디 13-14, 마디 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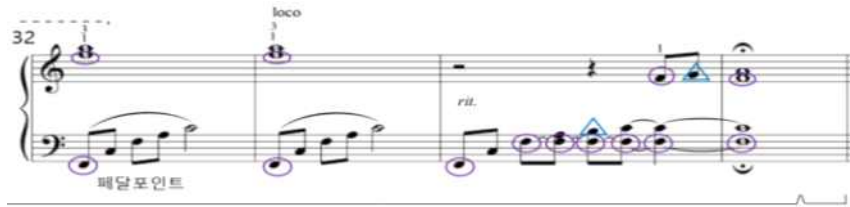
3) 섬세한 페달 표기

일반적으로 화음이 바뀌면 페달을 바꾸고, 스타카토 혹은 악센트가 표기되어 있으면 악센트 페달링(accent pedaling)을 적용한다. 하지만 반달은 스타카토와 악센트 표기를 통해 분리된 소리가 강조되는 부분에서 페달을 바꾸지 않고 긴 페달링을 제시했다(악보 36). 이러한 특이한 페달에 의해 단절된 소리들이 묘하게 섞여 색채감 있는 소리가 만들어진다.



〈악보 36〉 7번 '난기류', 마디 17-19

〈악보 37〉은 리디아 선법의 종지음인 F음이 지속해서 강조되는 동안 비화성음인 B음과 G음이 나타나고 4마디 동안 이어지는 페달에 의해 소리가 섞이는 예를 보여준다. 그런데 반달은 4마디를 끌고 오던 페달을 마지막 마디에서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학생들이 미세한 소리의 울림까지도 듣고 연주하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 사항이 악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악보 37〉 4번 '리디아 녹턴', 마디 32-35

마디 31-32에서는 화음이 바뀔 때 마다 페달을 교체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다. 특히 마디 32에서는 팔분음표단위로 페달을 바꿀 것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은 순발력 있게 페달을 교체하는 훈련도 하게 된다(악보 38).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마디 34에서는 화음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페달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악보 38). 따라서 반달의 페달 표기를 따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리의 울림에 영향을 미치는 페달의 효과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악보 38〉 1번 '전원', 마디 31-34

반달은 이렇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페달 사용법을 제시하였는데, 2번 작품과 같이 리듬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곡에서는 아예 페달표기를 하지 않은 것도 발견된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페달 표기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모드와 무드〉에 수록된 작품의 학습 목표 비교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작곡된 〈모드와 무드〉는 각 선법의 구별된 특징을 담고 있고, 각 작품마다 뚜렷한 학습 목표가 보인다. 이에 작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곡에서 발견되는 학습 목표를 선율, 리듬, 화성, 및 기타 음악 요소로 구분하여보면 〈표 6〉과 같이 요약되는

데, 이 내용은 이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 혹은 지도하는 교사 뿐 아니라 선법에 기초한 작품 창작이나 즉흥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 반달의 〈모드와 무드〉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약한 각 곡의 학습 목표

구분	학습 목표	구분	학습 목표
1	선율	선율	* 믹소리디아 선법 음계 * 4마디 단위로 구성된 규칙적 프레이즈 * 다양한 음역에서 주제 선율 반복 * 상이한 아티큘레이션과 선율 진행을 가진 두 개의 동기의 대조
	화성	화성	* I, VII, V가 강조된 화성진행 * 2도, 9도 음정이 강조된 화성진행
	리듬	리듬	* 당김음, 불규칙박이 포함된 리듬 패턴
	기타	기타	* 레가토, 스타카토, 악센트 등이 포함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 <i>p</i> 에서 <i>f</i> 를 오가는 썸머림과 점차적인 혹은 갑작스런 썸머림의 변화 * 템포 루바토
2	선율	선율	* 에올리아 선법 음계 * 4마디 단위로 구성된 규칙적 프레이즈 * 다양한 음역에서 주제 선율 반복 * 알베르티베이스와 레가토선율로 이루어진 동기와 모음화음과 역동적인 선율 진행으로 이루어진 동기의 대조
	화성	화성	* 화음의 자리바꿈을 통한 순차적 선율 진행 * 장 7화음, 2도, 4도, 6도 음정이 강조된 화성 진행
	리듬	리듬	* 4분음표 단위의 박의 흐름을 잘 드러내는 단순한 리듬패턴
	기타	기타	* 다섯 손가락 자리 * 레가토 아티큘레이션 * 레가토 페달링 * <i>p</i> 에서 <i>f</i> 를 오가는 썸머림과 점차적인 썸머림의 변화 * 템포루바토

구분	학습 목표	구분	학습 목표
3	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기아 선법 음계 * 다섯 손가락 자리에 기초한 4마디 단위의 규칙적 프레이즈 * 손가락 교차를 이용한 음계 연주 * 주정뱅이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선율 진행 * 썸여림과 음역의 대조를 통한 선율 반복 	7	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크리아 선법 음계 * 장2도와 단2도 음정이 강조된 선율 패턴 * 상행 스케일 패턴 * 8마디와 4마디로 구성된 프레이즈의 대조 * 글리산도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II, VII가 강조된 화성진행 * 장7화음, 단7화음 * 3음 혹은 5음이 생략된 화음 진행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3화음 * 페달 포인트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음표, 이분음표, 사분음표, 팔분음표로 구성된 단순한 리듬 패턴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겹박자인 6/8박자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단순한 리듬패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카토와 레가토의 대조적 아티큘레이션 * <i>p</i> 에서 <i>f</i> 를 오가는 썸여림과 점차적인 썸여림의 변화 * 템포루바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레가토, 레가토, 스타카토, 악센트 등이 포함된 다양한 아티큘레이션 * <i>pp</i> 에서 <i>ff</i> 를 오가는 썸여림과 점차적인 혹은 갑작스러운 썸여림의 변화 * 악센트 페달 * 템포루바토
4	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디아 선법 음계 * 상행 스케일 패턴 * 4마디 단위로 구성된 규칙적 프레이즈 * 아르페지오 반주패턴 * 다양한 음역에서 주제 선율 반복 	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행 스케일 패턴 * 4마디 단위로 구성된 규칙적 프레이즈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II, VII가 강조된 화성진행 * 장 7화음과 4도 음정이 강조된 선율 진행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 포인트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박 단위로 흘러가는 단순한 리듬 패턴 	리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가락 교차 * 양손 교차 * 레가토 아티큘레이션 * 레가토 페달링 * <i>p</i> 에서 <i>f</i> 를 오가는 썸여림과 점차적인 썸여림의 변화 * 템포루바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가토 페달링 * 템포루바토 	

VI. 결론

피아노 교수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피아노 학습을 이어가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스타일 혹은 음계 학습을 통해 편견 없이 여러 장르의 음악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초급부터 고급 초반까지 많은 교육용 작품을 작곡한 반달은 ‘학생들의 테크닉과 음악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곡’,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음계와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특히 선법의 학습을 목적으로 작곡된 〈모드와 무드〉는 선법 음계가 가지는 독특한 색채감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서 연주 효과도 높다. 그리고 선법에 기초한 이 작품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장·단조 곡을 연주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아르농쿠르(N. Harnoncourt)는 “조용한, 좋은 의미에서 경쾌한, 혹은 비통한 성격에서 강렬한 기쁨, 격분, 분노 등의 흥분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서는 청취자의 마음속에서 감동과 육체적 인상을 불러일으키도록 음악으로 표현된다.”(Harnoncourt, 2009, p. 25)고 하였는데, 7가지의 구별된 분위기를 지닌 선법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선법을 주제로 〈모드와 무드〉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반달의 작업은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연구 결과 반달은 각 선법의 구별된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종지음과 특징음이 강조된 선율과 화성진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엷박, 당김음, 불규칙 박을 사용한 리듬의 변화, 워킹 베이스를 사용한 선율 진행, 그리고 페달 포인트 및 텐션 음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학생들이 재즈적 화성, 선율 및 리듬 어휘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급 학생들의 수준을 배려한 교수학적 장치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는데, 각 선법의 구별된 정서를 표현한 표제의 사용, 손가락의 교차와 이동을 최소화한 선율 진행, 단순한 선율 동기를 음역, 셈여림, 템포, 및 반주패턴의 대비를 통해 변형시킨 것, 그리고 섬세한 페달 표기 등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피아노를 학습하고 음악적인 지경을 넓히는 과정에서 익혀야 하는 중요한 학습 주제 중 하나인 선법을 주제로 한 반달의 피아노 작품을 소개하여, 새로운 레퍼토리를 모색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법이라는 소재를 중급 학생의 수준에 맞게 음악적으로 풀어낸 반달의 작곡가로서 능력을 발견하면서 그의 다른 작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반달의 교육용 작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피아노 교사 뿐 아니라 피아노를 학습하는 학생들도 선법에 기초한 피아노 음악 연주와 창작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혜라(2020). 알렉산더 체레프닌의 중국의 미크로코스모스 〈5음 음계를 사용한 연습곡집〉에 관한 연구: Op. 51의 분석을 중심으로. **음악교수법연구**, 21(2), 91-119.
- 나란이(2018). 엘리센다 파브레가스(Elisenda Fábregas)의 초급 피아노 작품을 통한 창의적 수업방안 모색. **음악교수법연구**, 19(1), 31-53.
- 낙완주, 유승지(2019). 강문예(Ciang Wen-Yeh)의 〈북경 만화집 Op. 22〉에서 발견되는 민족적 특징과 서양 작곡 기법의 조화로운 적용. **음악교수법연구**, 20(2), 85-106.
- 박옥희(2014). 김중석의 〈피아노를 위한 6편의 Nori〉와 바르톡의 〈Six Dances in Bulgarian Rhythm〉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3, 1-25.
- 박진희, 유승지(2019). 〈현대와 과거〉 분석을 통해 나타난 리에거의 음악 어법. **음악교수법연구**, 20(1), 83-106.
- 신은혜, 이주혜(2021). 치차로스의 〈시적인 순간〉 중 ‘철새’, ‘블루스왈츠’, ‘나비레그타임’, ‘서부기차’ 분석 및 교수법적 제안. **음악교수법연구**, 22(1), 131-170.
- 유승지(2010). 초급 피아노 교재에 사용된 장·단조 체계 이외의 악곡 분석과 활용 방안. **음악과 문화**, 23, 73-107.
- 유은석(2017). 자끄 이베르의 〈이야기들〉 중 두 악장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교수방안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8(1), 139-165.
- 이연경(2016a). 미국 작곡가 에마 루 디머(Emma Lou Diemer)의 교재용 피아노 악곡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7(1), 77-104.
- _____(2016b). 로버트 스타러의 교육용 피아노 작품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7(2), 165-189.
- 장기호(2017). **나는 모드로 작곡한다**. 서울: 예술.
- 조치노(1999). **벨라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입문**. 서울: 음악춘추사.
- 채수아(2017). 윌리엄 길록(William Gillock)의 피아노곡집 〈리듬과 양식: 바로크, 고전, 낭만, 그리고 근대 양식〉의 중급 보충교재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8(2), 193-220.
- 최은정(2005). 황철익의 ‘때굴때굴 도토리’ 피아노 교수법적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5, 99-116.
- Albergo, C., Alexander, R. & Blickenstaff, M.(2008).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Mississauga, ON: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 Atlas, A. W.(1998). *Renaissance music*.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Berendt, J. E.(2004). **재즈북: 레그타임부터 퓨전 이후까지**. 한중현(역). 서울: 이룸.
- Bouffard, P. P.(2004). *Foundations for a new mode of expression in modern jazz: Miles Davis's kind of blue and modal jazz*. D.M.A. diss. Boston: New England Conservatory.
- Burge, D.(1997). **20세기 피아노 음악**. 박숙련(역). 서울: 음악춘추사.
- Choi, C. H.(2012). *The Contributions of James Lyke to piano pedagogy*. D.M.A diss.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illespie, J.(2005). **피아노 음악**. 김경임(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Gladden, M.(2017). *A Survey of elementary piano repertoire: A piano instructor's resource*. D.M.A diss.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Harnoncourt, N.(2009). **바로크음악은 '말'한다**. 강혜근(역). 서울: 음악세계.

Johnson, R. G.(2007), Feature Article: Perspectives in Pedagogy. *Keyboard Companion*, Winter, 6-11.

Persichetti, V.(2007). **20세기 화성: 창작과 실제**. 강순희(역). 서울: 수문당.

Randel, D. ed.(1986).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Mod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Robinson, B. (1980). "Modal jazz."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Ed. Stanley Sadie. 20 vols. London: MacMillan. XII: 376.

<악보>

Vandall, R. D.(1989). *Modes and moods*. Denver, CO: Myklas Music Press.

<인터넷 자료>

Alfred Music. Author: Robert D. Vandall. Retrieved August 15, 2021, from <https://www.alfred.com/authors/robert-d-vandall/>.

_____. Robert D. Vandall: Products. Retrieved August 15, 2021, from <https://www.alfred.com/search/products/?query=robert+d+vandall>

■ Abstract

The Musical Syntax of Robert D. Vandall Discovered in 〈Modes and Moods〉

Choi, Eunkyung · Ryu, Seungji

Robert D. Vandall was one of the famous composers of educational piano works in America. His work, 〈Modes and Moods〉 composed in 1989, is a suite of seven pieces that included various ideas so that students at the intermediate level can joyfully learn about mode. Vandall's musical syntax discovered through the analysis of 〈Modes and Mood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lodies and harmonic progressions emphasizing tonic and characteristic notes are used to reveal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even modes. Second, jazz elements are also notable: the frequent uses of pedal points and tension notes, rhythmic changes which use offbeats, syncopations, unequal beats, and melodic progressions with walking bass. Finally, this piece displays various pedagogical devices that are considered appropriate for intermediate-level students. Vandall used titles expressing the distinctive sentiment of each mode, and minimized the finger crossing and movements in melodic progression. In addition, he altered simple melodic motives with the register, dynamics, tempo, rhythm, the accompaniment pattern, and offered delicate pedal marking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on Vandall's educational works, which are not well known in Korea, will be actively studied, and that piano teachers and students alike will be interested in piano music based on mode.

Keywords: Robert D. Vandall, Modes and Moods, Mode, Educational piano compositions

논문접수: 2021년 6월 30일 수정본접수: 2021년 8월 30일 게재승인: 2021년 9월 10일